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명	2023학년도 제4차 등록금심의위원회
일시	2023. 01. 11.(수) 10:00 ~ 11:30
장소	서울캠퍼스 본관 2층 제2회의실/ERICA 본관 2층 프라임 컨퍼런스홀 (캠퍼스간 화상회의로 진행)
참석 현황	참석대상 위원 11명 중 11명 참석, 간사 2명, 참관인 2명 참석
회의 안건	1. 제3차 회의 회의록 검토 2. 참관인 소개 및 서약서 작성 3. 내국인 학부/대학원 등록금 심의 및 각 주체별 요구사항 논의 4. 차기 회의 일시 결정
내용 요약	1. 제3차 회의 회의록 검토 : 의견접수 및 서명 2. 참관인 소개 및 서약서 작성 3. 내국인 학부/대학원 등록금 심의 : 학교 측 인상안 제시 가. 내국인 입학금 - 학부 : 입학금(편입학, 재입학 포함) 195천원은 최초학기 수업료에 산입 후 폐지 - 대학원 : 동결 나. 내국인 수업료(신입생, 재학생) - 학부 : 동결 - 대학원 : 전 대학원 2% 인상, 법학전문대학원 동결 다. 내국인 연구등록금 : 동결 라. 계절학기 수강료 : 동결 4. 각 주체별 요구사항 제시 및 질의응답 - 서울 학부, ERICA 학부, 대학원 순으로 요구사항 제시 및 질의응답(본문 참고) 5. 차기 회의 일시 결정 : 2023년 1월 19일(목) 13시 30분

1. 제3차 회의 회의록 의견접수

- 사전 공유된 3차 회의록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질문 바란다.(위원장)
→ 이견 없음 (참석위원 전원)

2. 성원보고(서울 예산팀장)

3. 참관인 소개 및 서약서 작성

- 서울캠퍼스 학생대표 측 참관인 1명 참석
-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장 장○규

- ERICA 학생대표 측 참관인 1명 참석
- 총학생회 문화행사국장 황○

4. 내국인 학부/대학원 등록금 심의 및 각 주체별 요구사항 논의

- 이번 회의 핵심 주제인 내국인 학부/대학원 등록금 심의와 관련하여 학교 측 의견제시 바란다.(위원장)
- 지난해 12월 말 교육부에서 2023학년도 등록금 인상 상한선을 공고하였으며, 최근 물가 상승률이 반영된 상한선이 4.05%로 공지되었다. 내국인 학부생의 경우 국가장학 2유형의 참여제한 조건 때문에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동결할 수밖에 없다. 다만, 내국인 대학원 등록금은 인상이 불가피 하다. 주요대학 대비 우리대학은 최근 2년간 내국인 대학원 등록금 인상이 없었기에, 2023학년도 내국인 대학원 수업료 2% 인상안을 제시한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와 관련해서 제한사항이 있기에 동결하고자 한다. 이외에 내국인 대학원 입학금 및 연구등록금은 동결하고자 한다. 등록금 인상으로 인한 2023학년도 재정여건의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서울캠퍼스의 2023학년도 본예산 편성(안)은 현재 약 -73억의 수지차액이 있는 상황이며, 외국인 유학생 수업료 5% 인상 시 약 +17.9억의 등록금 수입 증가, 내국인 대학원 수업료 2% 인상 시 약 +15.7억의 등록금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등록금 수입 증가분에서 20%내외는 장학금으로 지출될 예정이기에 순수 수지개선 폭은 약 +26억 정도로 예상한다. -73억 수지차액에서 순수 수지개선 +26억을 더하면 -47억의 재정 부족분이 발생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23학년도 제6,7생활관 공사예산 총 300억을 전액 기금 인출로 충당하는 것으로 수지차액을 보전하고자 한다. 제6,7생활관 공사예산의 당초 조달계획은 총 300억 중 최소 50억은 당해연도 수입에서 조달하고자 하였으나, 각종 공공요금 인상 폭이 과도하여 당초 계획은 반영하기 어렵게 되었다. 내국인 대학원생 등록금 인상에 따라 연구조교 장학금을 기존 학기당 28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하여 장학혜택을 늘리고자 한다.(서울 예산팀장)
- 이와 관련하여 ERICA에서도 말씀드리겠다. ERICA는 제시된 등록금 인상안에 따라 순수 수지 개선 폭은 약 +9억으로 예상한다. 지난 번 회의에서 말씀 드렸듯이 ERICA의 2023학년도 본예산 수지 차액은 현재 약 -46억이며 등록금 인상에 따른 순수 수지개선 +9억을 가산하더라도 사실상 수지차액을 맞추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그 부분 관련해서 2023학년도에 계획된 시설공사 중 관련 부서와 논의하여 공사 시작시점을 하반기 추경예산 편성 기간으로 연기하여, 재정여건 재판단 후 진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조절하여 약 11억을 추가 삭감할 예정이다. 그 외에 부족분 -26억은 기금을 추가적으로 인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ERICA 기획예산팀장)
- 각 주체별로 요구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내용에 기초하여 각 주체별 요구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겠다. 서울 학부, ERICA 학부, 대학원 순

으로 논의하고자 한다.(위원장)

- 서울 학부 총학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요청하는 바이다.(서울 학부 총학생회장)
 - ① 향후 건설되는 건축물에 대한 학생 측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소통창구 개설
 - ② 한양대학교 브랜드 관리를 위한 대동제 라치오스를 위한 추가예산 편성(유학생 문화 행사 예산 500만원, 안전관리 예산 1,500만원)
 - ③ 총학생회 주도의 학생참여 사업 진행을 위한 학생 참여 지원비(500만원)
 - ④ 장애 학우를 위한 장애학생이동지원차량 설치
 - ⑤ 총학생회 학생활동지원비 용도변경을 위한 예산 전용
 - ⑥ 총학생회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 편성(5,000만원 + 5,000만원)
 - ⑦ 향후 건설되는 건축물에 학생식당 추가 설치계획 문의
- 위 서울 학부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서울 기획처의 의견 바란다.(위원장)
- ①번 사항 : 신규 건축물 관련 협의체가 구성되거나 간담회를 진행할 때 학생 대표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방법을 학생처와 논의하겠다.(서울 예산팀장)
- ②번 사항 : 향후 대동제 진행시 지자체(성동구청)와 논의하여, 안전관련 추가예산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별도 지원하겠다.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문화행사 예산은 적극 검토하겠다.(서울 예산팀장)
- ③번 사항 : 서울 학생대표 측 의견을 바탕으로 일부 금액을 지원토록 논의하겠다.
- ④번 사항 : 해당 제도를 운영 중인 타 대학의 사례를 좀 더 조사해보겠다. 차량 활용도, 차량 관리자, 실제 효용성 등 여러 요소의 검토가 필요하다.(서울 예산팀장)
- ⑤번 사항 : 검토 후 반영하겠다.(서울 예산팀장)
- ⑥번 사항 :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 기본 5,000만원에서 추가되는 5,000만원은 학생회 측과 학교 측이 서로 합의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학교발전을 위한 곳에 활용하는 방향을 제안 드린다.(서울 예산팀장)
- ⑦번 사항 : 학생식당 문제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다. 최근 학생식당 몇 개소가 문을 닫게 되었다. 그 사유는 공간 부족이 아닌 운영업체의 자발적 사업철수이다. 교내 학생식당은 수익이 크지 않아 외부업체가 운영 및 유지가 어려워 사업을 철수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운영 중인 학생식당을 모니터링해본 바, 공간 부족에 따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정 시간대에 일시적으로 인원이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배식 방법이나 키오스크 추가 설치 등을 통해 개선하고자 한다. 그리고 현재 공사 중인 학생복지관 확장공사를 통하여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식사공간이 100여석 추가 확보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학교 측에서는 식당 관련 문제를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다.(서울 총무처장)
- 위 답변과 관련하여 질문이나 의견 바란다.(위원장)

- 답변 감사드린다. 학생식당 운영에 대한 수익성 문제는 우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다만 학생식당을 수익사업이 아닌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맛 좋고 질 좋은 음식을 값싸게 제공하는 복지 사업이라고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학에서 직접 운영 중인 학생식당의 경우에는 수익성을 고려하기보다는 학생복지 관점으로 바라봐줬으면 감사하겠다.(서울 학부 총학생회장)
- 학교 측에서도 대학에서 직접운영 중인 식당은 지속적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최근 재료비, 인건비가 급등한 상황임에도 가격인상은 최소화 하고자 노력 중이며 학생들에게 질 좋은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모니터링하고 노력하겠다.(서울 총무처장)
- 학생의 이동권 및 접근성을 개선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학교에서도 지속 노력 중이고 노력할 것이다. 그 일환으로 학생복지관 엘리베이터 설치, 애지문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가 논의된 것이다. 다만 그 설치과정이 마냥 간단치는 않은 거 같다. 인허가 문제, 관련 기관과 협의 문제, 예산 문제, 향후 관리 문제 등 많은 난관들이 있는 거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도 계속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리고 총학생회 측에서 제시한 우리대학 브랜드 이미지 제고의 일환으로, 외국인 유학생이 문화 행사, 공모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지원요청하는 것에 대해 학교 측도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공감하는 바이다.(위원장)
- ERICA 학부 요구사항을 제시 바란다.(위원장)
- ERICA 학부 총학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요청하는 바이다.(ERICA 학부 총학생회장)
 - ① 교육환경개선금 추가예산 편성(12,000만원 + 5,000만원)
 - ② 총학생회 홈페이지 개선을 위한 추가예산 편성(1,000만원)
 - ③ 귀향버스 사업을 위한 추가예산 편성(500만원)
 - ④ 모바일 학생증 건물 출입 시스템 구축(10억)
 - ⑤ 총학생회 사업 진행 시, 안전관리비 추가예산 편성(2,000만원)
- 위 ERICA 학부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ERICA 기획홍보처에서는 의견 바란다.(위원장)
- ERICA 학부 요구사항을 전일 오후에 전달받은 상황이기에, ERICA 학생위원과 별도 실무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논의 후 차기 회의 때 최종 결론제시 및 합의토록 하겠다.(ERICA 기획예산팀장)
- 그럼 ERICA는 학교 측과 학생위원의 실무위원회 논의 결과를 다음 회의에 발표해주길 바란다. 다른 의견이나 질문 있는 위원은 말씀 바란다.(위원장)

- 대학원 총학생회 측 요구사항을 제시하기에 앞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한다. 내국인 학부 등록금의 경우 정부의 정책 방향성 때문에 인상이 어려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항상 대학원 학생들에서만 불가인상, 코로나 등에 따른 고통이 전가되는 것 같다. 물론 최근 2년간 우리대학 대학원 등록금 인상이 없었던 것은 알고 있으나, 그 기간 동안 대학원 총원율 또한 증가되어 등록금 수입에 상당 부분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 즉 대학원 측에서는 학교가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항상 큰 부분을 기여했다는 점을 공감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국인 대학원 등록금 2% 인상이 과연 합리적인 수준인가를 좀 더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주요대학 대비 우리대학의 대학원생 장학금 수혜율은 저조하다. 이런 부분의 개선이 미비한 상황에서 등록금만 인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한양대학교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이 해소가 되어야 등록금 인상에 대한 충분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대학원 총학생회장)

→ 최근 대학원 총원율의 증가가 우리대학의 재정난 해소에 상당부분 기여한 것을 인정하고 감사히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 약 98%의 대학원 총원률이 계속 지속되리란 보장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그렇기에 학교 측에서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 입장임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장학금 수혜율과 관련해서도 우리대학이 주요대학 대비 저조한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장학제도의 정착기간을 고려했을 때 단기간에 해소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대학원 장학금 수혜율을 높이고자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 그 일환으로 연구조교 장학금 증액도 고려된 것이다.(서울 예산팀장)

- 대학원 장학금 수혜율과 관련해서 지속적인 학교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출하신 예산자료를 검토해보았을 때 이렇게 어려운 상황임에도 학생지원비 예산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에 대해 학교가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다만 2023학년도 학생지원비 예산 대비 2023학년도 가결산 기준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 바란다.(대학원 총학생회장)

→ 코로나 이후 학생지원비 집행률이 저조한 경향이 발생하였고, 그 여파가 아직까지 100% 회복되지 않은 것 같다. 현재 예산팀에서는 각 단과대학별로 확인 및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 단과대학별 학생지원비 미집행액이 발생할 경우 해당 예산은 단과대학의 환경개선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되어 학생의 학업환경 개선에 사용되는 점을 이해 바란다. 아울러, 우리대학은 RC자율예산제도를 운영 중이기에 본부부서에서 RC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상명하달하는 것은 일부 무리가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서울 예산팀장)

- 학생지원비 미집행액이 추후 교육환경 개선 용도로 사용되는 것도 이해는 되지만, 애초에 해당 예산의 목적은 학생 교육활동 외에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이다. 그러니 본부차원에서 단과대학 예산편성 시 학생지원비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단과대학에서도 충분히 이행하여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생처에서도 단과대학의 학생지원비 집행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학원 총학생회 측에서도 총학생회가 추천한 RC대표자협의회 위원 50% 이상이 RC예산 심의에 직접 참여하며 활동하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학원 총학생회장)

→ 학생지원비를 무리하게 허투로 집행하기보단 학생들의 직접적인 교육환경 개선에 투자하는 것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예상보다 길게 이어지는 만큼 예전처럼 온전히 모든 행사를 진행하기엔 아직까지 무리가 있는 듯하다. 단과대학에서도 해당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단과대학별 학생대표와 교류하게끔 되어있고, 협의할 수 있는 창구가 있으니 단과대 각 주체별 상호협의를하여 원만히 진행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위원장)

• 현재는 가결산 상태이니 결산이 완료되는 시점에 다시 한 번 이와 관련된 논의를 이어갔으면 좋겠다.(대학원 총학생회장)

• 대학원 총학생회 요구사항을 제시 바란다.(위원장)

• 대학원 총학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요청하는 바이다.(대학원 총학생회장)

- ① 조교협의회 공간 제공 및 활동예산배정
- ② 박사과정 학생 정기 주차권 가격 50% 인하 및 석사 할인 주차권 판매
- ③ 대학원 총학생회 예산 및 장학 확대
- ④ ERICA 대학원 총학생회 사무실 제공
- ⑤ RC대표자협의회 장학 증액(학기별 40만원 → 50만원)
- ⑥ 연구조교 장학 확대(전임교원 1인당 280만원 → 300만원)

• ①번 사항 : 조교협의회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일부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에, 해당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대학평의원회에서 논의해주셨으면 좋겠다.(서울 예산팀장)

②번 사항 : 서울캠퍼스 내 주차공간이 넉넉하지 않은 관계로 관리처와 협의를 필요한 부분이기때문에 논의 후 답변 드리겠다.(서울 예산팀장)

③번 사항 : 대학원 총학생회 예산과 관련해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검토해보겠다.(서울 예산팀장, ERICA 기획예산팀장)

④번 사항 : ERICA캠퍼스 내 대학원 총학생회 공간을 확보해 보겠다.(ERICA 기획예산팀장)

⑤번 사항 : RC대표자협의회 장학 증액을 지원하겠다.(서울 예산팀장, ERICA 기획예산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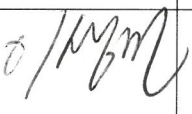
⑥번 사항 : 연구조교 장학금과 관련해서는 학교 측에서 제시한바와 같이 인상할 예정이다.(서울 예산팀장)

• 이상 각 주체별로 제시한 요구사항 관련해서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 바란다.(위원장)

- 서울 학부 총학생회에서는 신입생 입학식에 맞추어 새내기 맞이 행사를 준비 중이다.
이와 관련된 예산지원 바란다.(서울 학부 총학생회장)
- 현재 2022학년도 추경예산 작업을 마무리 중이기에, 빠른 시일 내에 예산규모 및 용도를 알려주면 검토하겠다.(서울 예산팀장)
- 추가 의견이나 질문 있으면 말씀바라며, 없으시면 금일 회의는 마치고자 한다.(위원장)

5. 차기 회의 일시 안내 : 2023년 1월 19일(목) 13시 30분(위원장)

6. 폐회선언(위원장)

참석 현황	참석 대상자	11명	참석자 서명	직위	성명	서명	직위	성명	서명
	참석자	11명		위원장	이○민		위원	안○익	
	불참자	0명		위원	이○석		위원	이○리	
불참 인원				위원	임○건		위원	방○원	
				위원	이○열		위원	박○원	
				위원	박○원		위원	이○성	
				위원	박○학				
간사	소속 : 기획처 예산팀			직위 : 선임부장 (예산팀장)			성명 : 강○수		
간사	소속 : 기획홍보처 기획예산팀			직위 : 부장 (기획예산팀장)			성명 : 김○오		
간사	소속 : 경영부총장 재무팀			직위 : 부장 (재무팀장)			성명 : 배○진		
작성자	소속 : 기획처 예산팀			직위 : 과장			성명 : 한○규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명	2023학년도 제4차 등록금심의위원회
일시	2023. 01. 11.(수) 10:00 ~ 11:30
장소	서울캠퍼스 본관 2층 제2회의실/ERICA 본관 2층 프라임 컨퍼런스홀 (캠퍼스간 화상회의로 진행)
참석 현황	참석대상 위원 11명 중 11명 참석, 간사 2명, 참관인 2명 참석
회의 안건	1. 제3차 회의 회의록 검토 2. 참관인 소개 및 서약서 작성 3. 내국인 학부/대학원 등록금 심의 및 각 주체별 요구사항 논의 4. 차기 회의 일시 결정
내용 요약	1. 제3차 회의 회의록 검토 : 의견접수 및 서명 2. 참관인 소개 및 서약서 작성 3. 내국인 학부/대학원 등록금 심의 : 학교 측 인상안 제시 가. 내국인 입학금 - 학부 : 입학금(편입학, 재입학 포함) 195천원은 최초학기 수업료에 산입 후 폐지 - 대학원 : 동결 나. 내국인 수업료(신입생, 재학생) - 학부 : 동결 - 대학원 : 전 대학원 2% 인상, 법학전문대학원 동결 다. 내국인 연구등록금 : 동결 라. 계절학기 수강료 : 동결 4. 각 주체별 요구사항 제시 및 질의응답 - 서울 학부, ERICA 학부, 대학원 순으로 요구사항 제시 및 질의응답(본문 참고) 5. 차기 회의 일시 결정 : 2023년 1월 19일(목) 13시 30분

1. 제3차 회의 회의록 의견접수

- 사전 공유된 3차 회의록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질문 바란다.(위원장)
- 이견 없음 (참석위원 전원)

2. 성원보고(서울 예산팀장)

3. 참관인 소개 및 서약서 작성

- 서울캠퍼스 학생대표 측 참관인 1명 참석
-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장 장○규

- ERICA 학생대표 측 참관인 1명 참석
- 총학생회 문화행사국장 황○

4. 내국인 학부/대학원 등록금 심의 및 각 주체별 요구사항 논의

- 이번 회의 핵심 주제인 내국인 학부/대학원 등록금 심의와 관련하여 학교 측 의견제시 바란다.(위원장)
- 지난해 12월 말 교육부에서 2023학년도 등록금 인상 상한선을 공고하였으며, 최근 물가 상승률이 반영된 상한선이 4.05%로 공지되었다. 내국인 학부생의 경우 국가장학 2유형의 참여제한 조건 때문에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동결할 수밖에 없다. 다만, 내국인 대학원 등록금은 인상이 불가피 하다. 주요대학 대비 우리대학은 최근 2년간 내국인 대학원 등록금 인상이 없었기에, 2023학년도 내국인 대학원 수업료 2% 인상안을 제시한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와 관련해서 제한사항이 있기에 동결하고자 한다. 이외에 내국인 대학원 입학금 및 연구등록금은 동결하고자 한다. 등록금 인상으로 인한 2023학년도 재정여건의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서울캠퍼스의 2023학년도 본예산 편성(안)은 현재 약 -73억의 수지차액이 있는 상황이며, 외국인 유학생 수업료 5% 인상 시 약 +17.9억의 등록금 수입 증가, 내국인 대학원 수업료 2% 인상 시 약 +15.7억의 등록금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등록금 수입 증가분에서 20%내외는 장학금으로 지출될 예정이기에 순수 수지개선 폭은 약 +26억 정도로 예상한다. -73억 수지차액에서 순수 수지개선 +26억을 더하면 -47억의 재정 부족분이 발생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23학년도 제6,7생활관 공사예산 총 300억을 전액 기금 인출로 충당하는 것으로 수지차액을 보전하고자 한다. 제6,7생활관 공사예산의 당초 조달계획은 총 300억 중 최소 50억은 당해연도 수입에서 조달하고자 하였으나, 각종 공공요금 인상 폭이 과도하여 당초 계획은 반영하기 어렵게 되었다. 내국인 대학원생 등록금 인상에 따라 연구조교 장학금을 기존 학기당 28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하여 장학혜택을 늘리고자 한다.(서울 예산팀장)
- 이와 관련하여 ERICA에서도 말씀드리겠다. ERICA는 제시된 등록금 인상안에 따라 순수 수지 개선 폭은 약 +9억으로 예상한다. 지난 번 회의에서 말씀 드렸듯이 ERICA의 2023학년도 본예산 수지 차액은 현재 약 -46억이며 등록금 인상에 따른 순수 수지개선 +9억을 가산하더라도 사실상 수지차액을 맞추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그 부분 관련해서 2023학년도에 계획된 시설공사 중 관련 부서와 논의하여 공사 시작시점을 하반기 추경예산 편성 기간으로 연기하여, 재정여건 재판단 후 진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조절하여 약 11억을 추가 삭감할 예정이다. 그 외에 부족분 -26억은 기금을 추가적으로 인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ERICA 기획예산팀장)
- 각 주체별로 요구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내용에 기초하여 각 주체별 요구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겠다. 서울 학부, ERICA 학부, 대학원 순

으로 논의하고자 한다.(위원장)

- 서울 학부 총학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요청하는 바이다.(서울 학부 총학생회장)
 - ① 향후 건설되는 건축물에 대한 학생 측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소통창구 개설
 - ② 한양대학교 브랜드 관리를 위한 대동제 라치오스를 위한 추가예산 편성(유학생 문화 행사 예산 500만원, 안전관리 예산 1,500만원)
 - ③ 총학생회 주도의 학생참여 사업 진행을 위한 학생 참여 지원비(500만원)
 - ④ 장애 학우를 위한 장애학생이동지원차량 설치
 - ⑤ 총학생회 학생활동지원비 용도변경을 위한 예산 전용
 - ⑥ 총학생회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 편성(5,000만원 + 5,000만원)
 - ⑦ 향후 건설되는 건축물에 학생식당 추가 설치계획 문의
- 위 서울 학부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서울 기획처의 의견 바란다.(위원장)
- ①번 사항 : 신규 건축물 관련 협의체가 구성되거나 간담회를 진행할 때 학생 대표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방법을 학생처와 논의하겠다.(서울 예산팀장)
- ②번 사항 : 향후 대동제 진행시 지자체(성동구청)와 논의하여, 안전관련 추가예산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별도 지원하겠다.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문화행사 예산은 적극 검토하겠다.(서울 예산팀장)
- ③번 사항 : 서울 학생대표 측 의견을 바탕으로 일부 금액을 지원토록 논의하겠다.
- ④번 사항 : 해당 제도를 운영 중인 타 대학의 사례를 좀 더 조사해보겠다. 차량 활용도, 차량 관리자, 실제 효용성 등 여러 요소의 검토가 필요하다.(서울 예산팀장)
- ⑤번 사항 : 검토 후 반영하겠다.(서울 예산팀장)
- ⑥번 사항 :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 기본 5,000만원에서 추가되는 5,000만원은 학생회 측과 학교 측이 서로 합의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학교발전을 위한 곳에 활용하는 방향을 제안 드린다.(서울 예산팀장)
- ⑦번 사항 : 학생식당 문제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다. 최근 학생식당 몇 개소가 문을 닫게 되었다. 그 사유는 공간 부족이 아닌 운영업체의 자발적 사업철수이다. 교내 학생식당은 수익이 크지 않아 외부업체가 운영 및 유지가 어려워 사업을 철수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운영 중인 학생식당을 모니터링해본 바, 공간 부족에 따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정 시간대에 일시적으로 인원이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배식 방법이나 키오스크 추가 설치 등을 통해 개선하고자 한다. 그리고 현재 공사 중인 학생복지관 확장공사를 통하여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식사공간이 100여석 추가 확보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학교 측에서는 식당 관련 문제를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다.(서울 총무처장)
- 위 답변과 관련하여 질문이나 의견 바란다.(위원장)

- 답변 감사드린다. 학생식당 운영에 대한 수익성 문제는 우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다만 학생식당을 수익사업이 아닌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맛 좋고 질 좋은 음식을 값싸게 제공하는 복지 사업이라고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학에서 직접 운영 중인 학생식당의 경우에는 수익성을 고려하기보다는 학생복지 관점으로 바라봐줬으면 감사하겠다.(서울 학부 총학생회장)
- 학교 측에서도 대학에서 직접운영 중인 식당은 지속적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최근 재료비, 인건비가 급등한 상황임에도 가격인상은 최소화 하고자 노력 중이며 학생들에게 질 좋은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모니터링하고 노력하겠다.(서울 총무처장)
- 학생의 이동권 및 접근성을 개선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학교에서도 지속 노력 중이고 노력할 것이다. 그 일환으로 학생복지관 엘리베이터 설치, 애지문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가 논의된 것이다. 다만 그 설치과정이 마냥 간단치는 않은 거 같다. 인허가 문제, 관련 기관과 협의 문제, 예산 문제, 향후 관리 문제 등 많은 난관들이 있는 거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도 계속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리고 총학생회 측에서 제시한 우리대학 브랜드 이미지 제고의 일환으로, 외국인 유학생이 문화 행사, 공모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지원요청하는 것에 대해 학교 측도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공감하는 바이다.(위원장)
- ERICA 학부 요구사항을 제시 바란다.(위원장)
- ERICA 학부 총학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요청하는 바이다.(ERICA 학부 총학생회장)
 - ① 교육환경개선금 추가예산 편성(12,000만원 + 5,000만원)
 - ② 총학생회 홈페이지 개선을 위한 추가예산 편성(1,000만원)
 - ③ 귀향버스 사업을 위한 추가예산 편성(500만원)
 - ④ 모바일 학생증 건물 출입 시스템 구축(10억)
 - ⑤ 총학생회 사업 진행 시, 안전관리비 추가예산 편성(2,000만원)
- 위 ERICA 학부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ERICA 기획홍보처에서는 의견 바란다.(위원장)
- ERICA 학부 요구사항을 전일 오후에 전달받은 상황이기에, ERICA 학생위원과 별도 실무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논의 후 차기 회의 때 최종 결론제시 및 합의토록 하겠다.(ERICA 기획예산팀장)
- 그럼 ERICA는 학교 측과 학생위원의 실무위원회 논의 결과를 다음 회의에 발표해주길 바란다. 다른 의견이나 질문 있는 위원은 말씀 바란다.(위원장)

- 대학원 총학생회 측 요구사항을 제시하기에 앞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한다. 내국인 학부 등록금의 경우 정부의 정책 방향성 때문에 인상이 어려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항상 대학원 학생들에서만 불가인상, 코로나 등에 따른 고통이 전가되는 것 같다. 물론 최근 2년간 우리대학 대학원 등록금 인상이 없었던 것은 알고 있으나, 그 기간 동안 대학원 총원율을 또한 증가되어 등록금 수입에 상당 부분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 즉 대학원 측에서는 학교가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항상 큰 부분을 기여했다는 점을 공감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국인 대학원 등록금 2% 인상이 과연 합리적인 수준인가를 좀 더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주요대학 대비 우리대학의 대학원생 장학금 수혜율은 저조하다. 이런 부분의 개선이 미비한 상황에서 등록금만 인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한양대학교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이 해소가 되어야 등록금 인상에 대한 충분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대학원 총학생회장)

→ 최근 대학원 총원율의 증가가 우리대학의 재정난 해소에 상당부분 기여한 것을 인정하고 감사히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 약 98%의 대학원 총원율이 계속 지속되리란 보장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그렇기에 학교 측에서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 입장임을 이해 부탁드린다. 장학금 수혜율과 관련해서도 우리대학이 주요대학 대비 저조한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장학제도의 정착기간을 고려했을 때 단기간에 해소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대학원 장학금 수혜율을 높이하고자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 그 일환으로 연구조교 장학금 증액도 고려된 것이다.(서울 예산팀장)

- 대학원 장학금 수혜율과 관련해서 지속적인 학교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출하신 예산자료를 검토해보았을 때 이렇게 어려운 상황임에도 학생지원비 예산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에 대해 학교가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다만 2023학년도 학생지원비 예산 대비 2023학년도 가결산 기준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 바란다.(대학원 총학생회장)

→ 코로나 이후 학생지원비 집행률이 저조한 경향이 발생하였고, 그 여파가 아직까지 100% 회복되지 않은 것 같다. 현재 예산팀에서는 각 단과대학별로 확인 및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 단과대학별 학생지원비 미집행액이 발생할 경우 해당 예산은 단과대학의 환경개선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되어 학생의 학업환경 개선에 사용되는 점을 이해 바란다. 아울러, 우리대학은 RC자율예산제도를 운영 중이기에 본부부서에서 RC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상명하달하는 것은 일부 무리가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서울 예산팀장)

- 학생지원비 미집행액이 추후 교육환경 개선 용도로 사용되는 것도 이해는 되지만, 애초에 해당 예산의 목적은 학생 교육활동 외에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이다. 그러니 본부차원에서 단과대학 예산편성 시 학생지원비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단과대학에서도 충분히 이행하여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생처에서도 단과대학의 학생지원비 집행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학원 총학생회 측에서도 총학생회가 추천한 RC대표자협의회 위원 50% 이상이 RC예산 심의에 직접 참여하며 활동하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학원 총학생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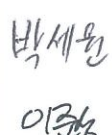
→ 학생지원비를 무리하게 허투로 집행하기보단 학생들의 직접적인 교육환경 개선에 투자하는 것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예상보다 길게 이어지는 만큼 예전처럼 온전히 모든 행사를 진행하기엔 아직까지 무리가 있는 듯하다. 단과대학에서도 해당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단과대학별 학생대표와 교류하게끔 되어있고, 협의할 수 있는 창구가 있으니 단과대 각 주체별 상호협의를하여 원만히 진행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위원장)

- 현재는 가결산 상태이니 결산이 완료되는 시점에 다시 한 번 이와 관련된 논의를 이어갔으면 좋겠다.(대학원 총학생회장)
- 대학원 총학생회 요구사항을 제시 바란다.(위원장)
- 대학원 총학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요청하는 바이다.(대학원 총학생회장)
 - ① 조교협의회 공간 제공 및 활동예산배정
 - ② 박사과정 학생 정기 주차권 가격 50% 인하 및 석사 할인 주차권 판매
 - ③ 대학원 총학생회 예산 및 장학 확대
 - ④ ERICA 대학원 총학생회 사무실 제공
 - ⑤ RC대표자협의회 장학 증액(학기별 40만원 → 50만원)
 - ⑥ 연구조교 장학 확대(전임교원 1인당 280만원 → 300만원)
- ①번 사항 : 조교협의회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일부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에, 해당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대학평의원회에서 논의해주셨으면 좋겠다.(서울 예산팀장)
- ②번 사항 : 서울캠퍼스 내 주차공간이 넉넉하지 않은 관계로 관리처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기때문에 논의 후 답변 드리겠다.(서울 예산팀장)
- ③번 사항 : 대학원 총학생회 예산과 관련해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검토해보겠다.(서울 예산팀장, ERICA 기획예산팀장)
- ④번 사항 : ERICA캠퍼스 내 대학원 총학생회 공간을 확보해 보겠다.(ERICA 기획예산팀장)
- ⑤번 사항 : RC대표자협의회 장학 증액을 지원하겠다.(서울 예산팀장, ERICA 기획예산팀장)
- ⑥번 사항 : 연구조교 장학금과 관련해서는 학교 측에서 제시한바와 같이 인상할 예정이다.(서울 예산팀장)
- 이상 각 주체별로 제시한 요구사항 관련해서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 바랍니다.(위원장)

- 서울 학부 총학생회에서는 신입생 입학식에 맞추어 새내기 맞이 행사를 준비 중이다.
이와 관련된 예산지원 바란다.(서울 학부 총학생회장)
- 현재 2022학년도 추경예산 작업을 마무리 중이기에, 빠른 시일 내에 예산규모 및 용도를 알려주면 검토하겠다.(서울 예산팀장)
- 추가 의견이나 질문 있으면 말씀바라며, 없으시면 금일 회의는 마치고자 한다.(위원장)

5. 차기 회의 일시 안내 : 2023년 1월 19일(목) 13시 30분(위원장)

6. 폐회선언(위원장)

참석 현황	참석 대상자	11명	참석자 서명	직위	성명	서명	직위	성명	서명			
	참석자	11명		위원장	이○민		위원	안○익				
	불참자	0명		위원	이○석		위원	이○리				
불참 인원				위원	임○건		위원	방○원				
				위원	이○열		위원	박○원		박세원		
				위원	박○원		위원	이○성		이성		
				위원	박○학							
간사	소속 : 기획처 예산팀				직위 : 선임부장 (예산팀장)		성명 : 강○수					
간사	소속 : 기획홍보처 기획예산팀				직위 : 부장 (기획예산팀장)		성명 : 김○오					
간사	소속 : 경영부총장 재무팀				직위 : 부장 (재무팀장)		성명 : 배○진					
작성자	소속 : 기획처 예산팀				직위 : 과장		성명 : 한○규					